



## 미 증시, PPI, 연준위원 발언 등 소화하며 혼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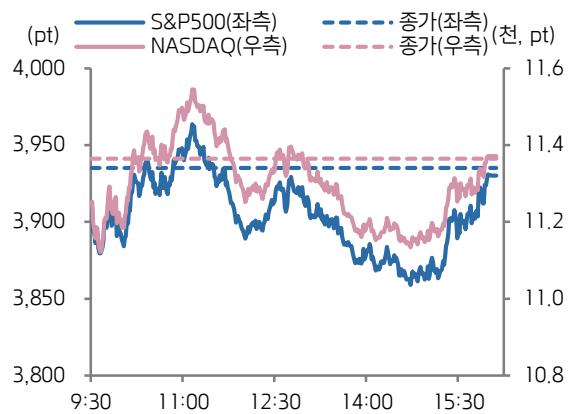
### 미국 증시 리뷰

12 일 (목) 미국 증시는 지속적인 통화정책 긴축 불안,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혼조 마감. S&P500 지수는 장 초반 0.7% 하락 출발 이후 전일 CPI 발 급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0.8%까지 상승했지만, 결국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 이날 미국 4 월 PPI 가 전월대비 둔화됨 점과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덜 매파적인 발언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미국 4 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대비 11.0% 증가(예상 +10.7%, 전월 +11.5%), 근원 지표는 전년대비 8.8% 증가(예상 +8.9%, 전월 9.6%)로 모두 전월 대비 둔화. 한편 러시아는 핀란드의 NATO 가입에 대해 반대하며 군사조치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점은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킴(다우 -0.33%, S&P500 -0.13%, 나스닥 +0.06%, 러셀 2000 +1.24%).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 당장 75bp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은 이날 통화정책 불안에 안도감을 제공했음. 마감 이후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향후 2 개의 FOMC 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옵션은 아니라고 언급. 한편 엘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 스테이플 코인 급락세의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고 언급.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3 만명(예상 19.5 만명, 전주 20.2 만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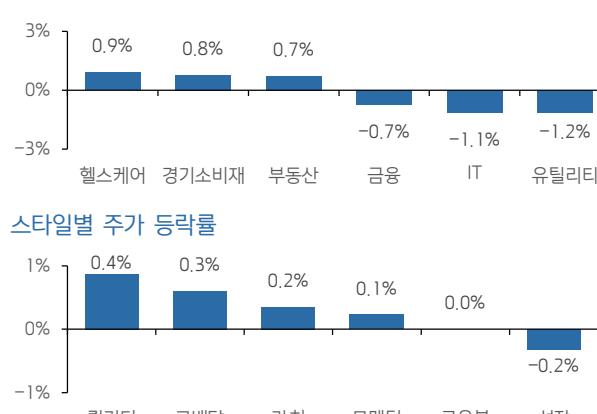
업종별로 헬스케어(+0.9%), 경기소비재(+0.8%), 부동산(+0.7%) 등이 상승, 유틸리티(-1.2%), IT(-1.1%), 금융(-0.7%) 등이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 연출. 대형 기술주 중 애플(-2.7%), 엔비디아(-2.7%)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아마존(+1.5%), 메타(+1.3%) 등이 반등하는 등 혼조세를 보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5%)와 다우 운송 지수(+0.2%)는 상승한 반면, 다우 항공 섹터 지수(-2.5%)는 하락. GM(-4.6%), 포드(-3.0%)은 웰스파고의 투자의견 다운그레이드 레포트 여파에 하락. 웰스파고는 향후 몇년간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실적을 발표한 위워(+10.4%)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EPS -0.57 달러 vs -0.88 달러)에 힘입어 급등, 디즈니(-0.9%)는 실적 부진과 디즈니+의 구독자수 성장이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락. 한편 게임스탑(+10.1%), AMC(+8.0%), 카바나(+24.7%) 등 밍스탁들은 급등.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30.08	-0.13%	USD/KRW	1,289.37	+1.09%
NASDAQ	11,370.96	+0.06%	달러 지수	104.78	+0.9%
다우	31,730.30	-0.33%	EUR/USD	1.04	+0.03%
VIX	31.77	-2.43%	USD/CNH	6.83	+0%
러셀 2000	1,739.38	+1.24%	USD/JPY	128.39	+0.04%
필라. 반도체	2,827.21	+0.5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320.27	+0.2%	국고채 3년	2.905	-1.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75	-8.5bp
Eurostoxx50	3,613.43	-0.94%	미국 국채 2년	2.559	-7.8bp
MSCI 전세계 지수	615.27	-0.69%	미국 국채 10년	2.848	-7.3bp
MSCI DM 지수	2,652.59	-0.9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1.22	+0.4%	WTI	106.13	+0.4%
MSCI 한국 ETF	62.68	-1.45%	금	1824.6	-1.5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1.0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
2. 장 전 동시호가 및 장중 신용 거래 관련 반대매매 물량 출회 여부
3.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 진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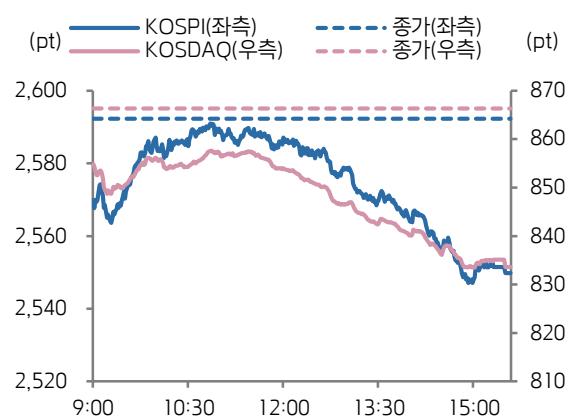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나스닥이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면서 폭락세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 불안은 잔존하고 있는 상황. 지난 11 일 소비자물가에 이어 12 일 미국의 4 월 생산자물가(11.0%YoY, 전월 11.5%)가 예상치(10.7%)를 상회한 가운데, 근원 생산자물가(8.8%YoY) 역시 예상치(8.9%)를 소폭 하회하는데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불안심리를 지속시키고 있는 모습. 물론 수치 상으로는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피크아웃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연말까지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22년 1월 초의 연말 미국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는 2%대 중후반 vs 현재의 연말 컨센서스는 5%대). 따라서 당분간 유가, 곡물, 주거비 등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의 가격 변화를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통해 정책 및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장과의 간극을 축소시키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졌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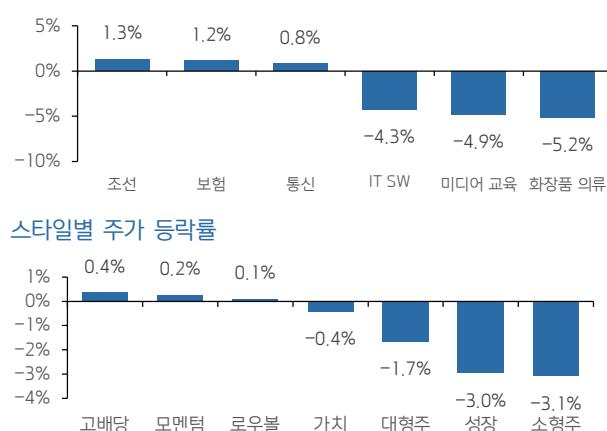
이처럼 데이터나 정책 상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반등의 재료가 부재함에 따라, 사후적이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지수는 고점대비 대부분 20% 넘게 급락하면서 가격 조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며, 지난 대형 위기(08년, 20년) 당시만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볼 필요. 이에 더해 대표적인 투자자심리지표인 CNN의 Fear&Greed Index 상으로 투자심리는 극도의 공포 영역(Extreme Fear, 0~25pt, 낮을수록 투자심리 악화)에 진입해 있으며, 그 안에서도 극단적인 레벨(현재 6pt)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까지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통한 시장 대응은 실익이 낮다고 판단.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폭락세 진정 속 전거래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 현재 코스피의 12 개월 선행 PBR 이 0.92 배로 과거 10 년 평균 레벨(0.96 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도 후행 PBR 상으로 1.02 배(과거 10 년 평균 1.06 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 시, 현 시점에서 대형 돌발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지수의 추가 하락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전거래일 중소형주들이 동반 폭락세를 연출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장 초반 신용 거래 관련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면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적절. 또 최근 성장주, 중소형주들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 압력을 유발한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 진정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